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6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 366)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6 번 시편 (Psalm) 10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Ephesians) 6:18-24	이기울 집사
설 교 Sermon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Pray in the Holy Spiri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83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 53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우리의 유익과 안락함을 더하는 수단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더욱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 3:20, 합 3:2,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한글개역 **엡6:18**)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saints.”

(NIV Ephesians 6: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8 (주일)	6/29 (월)	6/30 (화)	7/1 (수)	7/2 (목)	7/3 (금)	7/4 (토)
	수1	수2	수3	수4	수5:1-6:5	수6:6-27	수7
본문	시120-122 사61	시123-125 사62	시126-128 사63	시129-131 사64	시132-134 사65	시135-136 사66	시137-138 렘1
	마9	마10	마11	마12	마13	마14	마1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7/1수 오후730)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민 18:1-7)
토요 새벽기도회 (7/4토 오전630)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눅 11:1-4)

지난 주일(6/21) 말씀

“성령 안에서의 사역” (벧전 4:7-16)

‘성령 안에서의 사역은 (한 마디로) 복음이 주는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1)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2)둘째는, ‘사랑하라’는 것이며 마지막 3)셋째는,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역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령이거나 권면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주는 소망을 드러내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가장 기본 중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사역은 1)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벧전4:7), 2)반드시 사랑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하며 (벧전4:8), 또한 3)지속적인 섬김과 봉사로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벧전4:9-10).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또한 이것은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공의를 추구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려는 복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로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사역의 근간인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